

# 폭염에 '벌침' 독해졌다... 벌집제거 출동 급증

최근 몇 년 사이에 벌집제거 출동 건수가 50%나 급증해 말벌 쏘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8월말~9월초까지 말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말벌의 공격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벌퇴치 및 벌집제거 출동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12만8444건으로 2013년 8만6681건에 비해 약 50%가 증가했다.

말벌은 공격성과 벌침의 독성이 강한 편이다. 기온이 상승하는 7월부터 출현이 급증하고 8~9월 활동이 가장 왕성해 벌집제거 출동의 절반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주요 벌집제거 대상이다.

올해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벌집제거 출동건수가 7월 한달에만 3만1261건을 기록하는 등 올 1~7월 현재 4만385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7729건보다 58% 증가한 것이다.

올들어 벌 쏘임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2건이

지난해 12만8444건으로 2013년보다 50% 늘어

올해 기온 평년보다 높아 지난 한달에만 3만1261건

독성이 치명적인 왜래종 '등검은말벌' 빠르게 확산 도심 아파트 외벽 등서 서식

나 발생했다. 지난 7월11일 경북 양양에서 벌초 중이던 40대에 이어 같은 달 16일 경북 안동에서 임도를 정비하던 60대가 사망했다.

특히 최근에는 토종벌에 비해 도시 적응성이 좋고 공격성과 벌침의 독성이 높은 왜래종 '등검은말벌'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더욱 주의



등검은말벌 →



가 필요하다고 안전처는 강조했다. 등검은말벌은 도심에서 아파트 외벽이나, 지붕의 처마 밑, 가로등, 산책로 주변 등 사람과 접하기 쉬운 곳에 벌집을 짓고 벌집 근처에 접근하면 기습적으로 공격을 가한다.

안전처 관계자는 "벌집을 발견했을 때는 조심스럽게 자리를 피해야 하고, 만약 말벌의 공격을 받았다면 첫 공격 후 벌떼가 몰려 올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자리를 벗어나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 '벌 쏘임' 예방 대처법은?

### 강한 향이 나는 향수·화장품 사용 자제

최근 말벌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인 가운데 손톱 또는 손가락 크기의 벌이지만 독성은 치명적일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벌은 사람이 공격하지 않으면 사람을 공격하지 않지만 말벌은 사람의 공격 없이 사람의 활동만으로도 자극을 받아 사람을 먼저 공격하는 특성이 있다.

벌 쏘임을 예방하려면 강한 향이 나는 비누나 샴푸, 향수, 화장품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피부를 완전히 덮을 수 있는 긴 옷을 입는 것도 벌 쏘임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만일에 대비해 독성이 강한 살충용 스프레이를 휴대하면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 산을 다닐 때 주변에 벌집이 있는지 유심히 살피고 깊은 산 속보다는 정해진 등산로나 길을 이용하는 것이 벌의 공격을 좀 더 피할 수 있다.

음료수나 과일처럼 벌이 올 수 있는 달콤한 음식은 가까이 두지 않고, 만약 차안에 벌이 들어왔다면 정차한 상태로 모든 창문을 열어 벌이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만약 벌집을 발견했을 때에는 손을 휘젓거나 과도하게 움직이지 말고 조심스럽게 자리

를 피해야 한다. 모자를 쓰면 머리를 보호할 수 있고, 얼굴과 목에 신경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손이나 물건을 활용해 얼굴과 목을 보호하는 것이 좋다.

벌이 공격할 경우, 신속하게 장소를 떠나야 한다. 벌의 공격은 공격입과 동시에 다른 벌들에게 침입자가 있음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에 첫 공격 후, 벌 떼가 몰려올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벌이 사람의 움직임으로 더욱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벌집을 제거하기 보다는 119나 가까운 소방서로 연락해 벌집 제거를 요청해야 한다.

벌에 쏘이면 피부가 붓게 되고 구토, 설사,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다. 심하면 혈압이 떨어지거나 호흡곤란과 함께 의식을 잃거나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다.

벌에 쏘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벌 쏘임을 막기 위해 일단 안전한 장소로 환자를 이동시킨 뒤 가능한 한 빨리 벌침을 제거해야 한다.

핀셋이나 손으로 벌침을 꺼내려 하면 독주머니가 터져 독이 피부 안쪽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살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벌침을 빼는 것이 좋다.

말벌, 사람의 활동만으로 자극받아 대상을 먼저 공격하는 특성 있어 피부를 덮을 긴 옷 입는 것도 예방법

벌에 쏘인 경우 신용카드 등 이물질 밀어내 벌침을 빼는 것이 좋아 쏘인 부위는 물 등으로 닦아내야

쏘인 부위는 비누와 물로 부드럽게 닦아내야 한다. 또 찬물에 적신 헝겊이나 얼음주머니를 환부에 대면 통증과 부종을 줄일 수 있다. 얼음찜질을 해준 뒤에는 진통소염제나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

벌에 쏘인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묶어 독소가 심장까지 퍼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벌에 쏘인 부위를 비누와 물로 씻어 2차 감염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환부가 간지럽다고 긁을 경우, 부종이 심해질 수 있고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벌에 쏘인 후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국소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무관.)

반응과 전신 알레르기 반응으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국소 반응은 통증과 부종이 며칠간 지속되는 것이다.

그러나 전신 알레르기 반응은 몸, 얼굴, 목에 두드러기가 나타나 입 또는 숨결이 붓는 혈관 부종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에는 쇼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알레르기 반응으로 호흡이 곤란하거나 혈압이 불안정하다면 즉시 119로 신고한 후, 환자를 그늘에 눕히고 벨트나 끈 조이는 옷은 풀은 상태에서 인공호흡을 실시해야 한다.

이밖에 벌 쏘임 알레르기는 생명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곤충 알레르기가 있다면 처치 키트를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 벌에 쏘였을 땀 음식을 섭취해서도 안 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말벌에 쏘였을 때는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과민성 쇼크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병원에 가는 것이 안전하다"며 "벌에 쏘인 곳은 깨끗한 물로 씻어주고 얼음 주머니 등으로 냉찜질을 해주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등산이나 야외 활동 시에는 '항히스타민제'를 비상약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응급처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IMSIL-GUN 임실군**

**예약은 필수!**  
**임실에서 힐링하세요 ~**

**세심 자연휴양림**

- 전화 : 063-644-4611, 063-640-2475
- <http://smhu.imsil.go.kr>

**성수산 자연휴양림**

- 전화 : 063-642-9456~7
- <http://www.sunsusan.co.kr>